탄핵 찬성 여론에도 … 트럼프 "재선 자신"

미 NBC 방송·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 찬 49% vs 반 47%
공화당 지지층 90% 반대…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서 부결될 듯

미국 하원의 탄핵 조사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꼭 1년 남겨둔 3일(현지시간) 재선 성공에 자신감을 보였다.

백악관 풀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선을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자신 있다"고 한 뒤 "우리는 여론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조사 이후 탄핵 찬성론이 절반에 육박하고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뒤지는 결과가 빈번하지만, 역설적으로 여론조사를 토대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사람들은 탄핵에 대해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탄핵을 원하고 이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가짜뉴스'와 이 언론을 위해 협력하는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찬성률이 더 높은 조사 결과가 있다는 질문에도 "잘못된 조사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나는 진짜 여론조사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미시시피주 유세에서는 미국 유권자의 성난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며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여론조사를 근거로 삼았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대선 전 1년을 맞아 이날 공개된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달리 해석할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미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7~30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49%, 반대 46%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의 같은 기간 공동조사 역시 탄핵 찬성 49%, 반대 47%로 집계돼 유권자들의 찬반이 팽팽히 갈리며 미국 사회가 완전히 양분된 결과로 나왔다. 폭스뉴스의 지난달 27~30일 조사에서는 찬성 49%, 반대 41%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지 정당별로 극심한 찬반 양극화 현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NBC-WSJ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88%가 탄핵에 찬성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의 90%는 탄핵에 반대해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폭스뉴스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 86%가 탄핵에 찬성하고 공화당 지지층은 87%가 반대했으며, WP-ABC 조사 역시 이 비율은 각각 82%로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층의 '트럼프 사랑'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AP통신에 따르면 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공화당 지지층의 국정 지지율은 평균 86%였으며, 79%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은 평균 7%에 불과했다. 결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탄핵조사 착수 이후에도 공화당 지지층의 트럼프 지지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하면 탄핵 추진은 아이러니하게 공화당 지지층의 결속을 강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홍콩 시위 5개월 … 체포된 시민 3000명 넘었다

복면금지법 시행 후 급증
최근 45일 하루 평균 35명
'반중 정서' 표출 갈수록 심화

3일 홍콩 타이포 지역의 한 쇼핑몰에서 경찰이 민주화 시위에 참가한 여성 시민을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5일 150일째를 맞는 가운데 경찰의 시위 강경 대응으로 체포자가 급증하고 시위대도 폭력의 강도를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4일 홍콩 명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시민은 갈수록 늘어 지난달 31일 3007명을 기록, 드디어 3000 명을 넘어섰다.특히 두드러지는 점은 지난달 5일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시점을 전후해 시위자 체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9일부터 지난 9월 16일까지 100일 동안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의 수는 1453명으로 하루 평균 15명꼴이었다. 하지만 9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5일 동안 체포된 사람은 무려 1554명에 달해 하루 평균 35명씩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의 체포 권한을 대폭 강화한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후 체포된 시위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센트럴 등 홍콩 도심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진 지난 2일 하루 동안 체포된 시위대는 무려 200명을 넘었다.

지난 6월 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체포된 시위자 중 기소된 사람은 500명에 육박한다. 다만 체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소 속도는 느려져 체포자 대비 피 기소자 비율은 17%에 그쳤다.

경찰의 강경 대응에 맞서 시위대도 폭력 행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도로를 점거하고 보도블록을 깨서 돌을 던지는 것은 물론 화염병으로 경찰차나 물대포 차, 경찰서 등을 공격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시위대가 홍콩 정부의 강경 대응 배후라고 의심하는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도 커지면서 시위 과정의 '반중 정서' 표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시위가 갈수록 격해지면서 시위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일 시위 과정에서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54명, 전날 시위에서 다친 사람은 17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에는 범민주 진영 인사들을 향한 친중파 소행으로 추정되는 '백색테러'도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05〉 왕흠약

북송 진종·인종때 재상… 대표적 간신

왕흠약(王欽若, 962~1025)의 자는 정국(定國)이며 현재의 강서성 신연에 해당하는 신유 출신이다. 북송 진종과 인종때 두 번 재상을 역임한 대표적 간신이다.

순화 3년(992년) 진사 갑과에 합격해 공직에 나아갔다. 교서랑, 태상승, 좌간의대부, 참지정사, 형부시랑 등을 역임하였다. 1001년 부재상인 참지정사가 되었다. 경덕 원년(1004년) 요의 성종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남침했다. 조정은 화의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는 진종에게 금릉으로 천도할 것을 건의했다. 재상 구준이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말하기를 "폐하를 위해 이런 헌책을 한 자가 누구냐. 그 죄 마땅히 주살에 해당한다. 황제께서 친정하면 적은 마땅히 자진 후퇴할 것이다." 친정이 이루어졌고 양측은 '전연의 맹'이라는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구준과 라이벌인 왕흠약은 전연의 맹약을 국가의 치욕이라고 구준을 모략했다. "전연의 맹약을 성하(城下)에서 맺었는데 춘추(春秋)에서는 성 아래에서 맹약을 맺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진종은 구준을 멀리해 왕단을 재상으로 기용했다.

왕흠약은 성격이 괴팍하고 모사를 잘 꾸몄다. 하루는 진종이 희설시(喜雪詩)를 지어 몇몇 중신에게 하사했다. 글자 하나를 잘못 쓴 것을 재상 왕단이 발견하고 황제에게 이를 알리려 하였다. 왕흠약은 "천자의 시를 어찌 예부에서 교정할 수 있다는 말이요"라며 반대했다. 정작 본인은 사석에서 진종에게 은밀히 틀린 부분을 알려주었다. 진종은 조회에서 웃으며 재상과 추밀사에게 말하기를 "지난번 과인이 쓴 시를 왕흠약이 지적해주지 않았으면 웃음거리가 될 뻔 했소."

요와 불평등한 강화조약을 맺은 것을 명예롭지 않게 생각한 진종은 황제의 위엄을 회복할 계책을 왕흠약에게 물었다. 그는 건의하기를 "황제께서 요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유주와 계주를 다시 빼앗아 오면 치욕을 씻을 수 있습니다." 전쟁을 극력 꺼리는 진종은 답하기를 "백성들이 이제야 전쟁 없이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들을 다시 사지에 몰아넣을 수는 없다." 그는 재차 건의하기를 "출병이 꺼려지시면 대신 큰 업적을 세우셔야 합니다." 큰 업적이 뭐냐는 하문에 봉선(封禪)이라고 답했다. 봉선은 태산(泰山)에 가서 제사지내는 것으로 일대 국사였다. 그는 황제에게 계책을 알려주었다. 진종은 어느 날 조정 대신들을 불러 과인이 하늘로부터 천서(天書)가 내려온 꿈을 꾸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왕단, 왕흠약이 만세를 부르며 천서의 강림을 축하하였다. 봉선이 이루어졌고 공으로 다음 해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

과거시험을 주관했는데 친한 승려 혜진을 중간에 세워 수험생에게 350냥의 뇌물을 받고 합격시켰다. 이 일이 사후에 발각되자 어사중승 조창언이 황제에게 처벌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상의 자리를 이용해 교묘히 위기를 벗어났다. 태상승, 판삼사 재직시 탁지판관 무빈고가 그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이 세금을 독촉 받았지만 납부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 가난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밀린 전량을 면제해 달라고 하겠다."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상소를 올렸다. 상소문을 본 진종은 깜짝 놀라 그를 불러서 묻기를 "선제께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단 말이요?" 그는 답하기를 "선제께서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일부러 황제에게 남겨 처리토록 하신 것 같습니다." 진종은 이를 듣고 기뻐하며 체납된 전량을 감면해 주었다. 이일을 계기로 신임이 커져 요직인 한림학사에 발탁되었다.

왕단이 재상으로 있을 때 이종악을 참지정사로 추천할 생각이었다. 왕흠약이 이를 시기해 의견을 묻는 왕단에게 좋은 생각이라 찬성한 후 진종을 찾아가 둘을 모함했다. 이종악이 왕단에게 삼천만전을 빚지고 있어 그를 참지정사로 추천하는 것은 자신의 돈을 받아낼 생각 때문이라고 헐뜯었다. 결국 황제는 왕단의 추천을 거부했다.

1019년 재상에서 파직된 후 인종 원년 다시 재상으로 기용되었지만 크게 신임을 받지는 못했다. 술수가 뛰어나 정위, 임특, 진팽년, 유승규와 함께 오귀(五鬼)로 불리었다.

태양광발전소 선 착 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